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새 이미지 연구

A Study of New Images in the Modern Korean Poetry

음 영 철

삼육대학교

Eum yeong-cheol

Sahmyo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새의 이미지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한다. 낭만지향성, 사회비판의 매개체, 역사의식, 존재담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 시단에 나타난 새의 이미지가 풍부하게 분석되리라 본다.

I. 서론

한국 문학에서 새는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동물이다. 전통적으로 문학에 자주 등장한 새는 갈매기, 기러기, 두견, 까마귀 등이다. 인르은 은둔, 초월, 전언자, 비애, 망혼, 효도, 사악, 그리고 죽음을 상징한다. 한마디로 인간 감정의 다양한 면모를 표상한다고 하겠다. 천상과 지상의 매개체로서 새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수축, 확산, 추락, 상승시키면서 시에서 자주 등장한다. 우리의 고대시가 <황조가>에서 처음 등장한 꾀꼬리가 개인의 외로운 정서를 그린 최초의 새라면, 교려가요 <청산별곡>에 나타난 새는 유랑민의 삶의 비애를 상징한다. 반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백구(갈매기)는 단순한 배경으로 존재할 뿐이다. 일제 강점기 이육사의 박쥐와 박세영의 제비, 그리고 장호의 까마귀가 역사의식을 반영한 새라면, 전봉건의 ‘한 마리 큰 새’는 한국전쟁이라는 전쟁 체험의 시적 승화이다. 천상명의 새가 부활의 새였다면, 박남수의 새는 도달할 수 없는 근원적 인간을 지향한다. 정한모의 새가 인식의 각성을 추구하는 새라면, 김현구의 ‘검정 비둘기’는 감상적 낭만주의를 표상한다. 김수영의 새는 4.19와 관련해서 볼 때 자유를 상징한다. 이처럼 한국 현대시에서 새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어느 상징적 비유보다도 다양하고 폭넓게 수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다양한 새가 특정한 이미지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 착안하여 새 이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낭만지향으로서의 새 이미지

김현구(1904-1950) 시인은 영랑, 용아, 지용과 함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한 시문학 동인의 한 사람이다. 그의 시에 나타난 새 이미지는 <꾀꼬리>(其一)에서 알 수 있듯이 가볍고 밝은 이미지가 주조를 이룬다. 그러나 <검정 비둘기>에 나타난 ‘검정 비둘기’는 평화가 아닌 죽음을 상징한다. 죽음을 상징하는 색으로 무겁고 어두운 이미지가 주조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김현구 자신의 내면 깊이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처절한 울음소리로 볼 수 있다¹⁾.

김현구의 시에서 꾀꼬리의 밝은 상승 이미지가 갈매기에서는 설움을 동반한 상승과 하강으로 이어지고 <검정 비둘기>에서는 ‘혼자 슬피 우는’ 정적 이미지(static image)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각적 이미지에서 청각적 이미지로 변모하면서 사라지는 새의 운명은 결국 죽음을 표상한다고 하겠다.

2. 사회비판의 매개체로서의 새 이미지

김수영(1921-1968)의 초기시에 나타난 주된 정서가 설움과 비애였다면, 60년대에 4.19를 체험한 그의 시들은 자유에 모아진다. 4.19를 전후하여 김수영은 강렬한 사회의식의 소유자가 되었고 특히 이 시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그의 관심은 <푸른 하늘은>이라는 시에 잘 나타난다. 이 시에서 비상의 주체는 새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나 비상한 사람과 비상하지 못한 사람의 대비를 통해 시인은 민중에게 “노고지리가 무엇을 노래하는지”와 “自由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다”는 것과 “革命은 왜 고독해야 하는가”를 알아달라고 말한다²⁾. 이 시에서 노고지리는 비상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새라는 점에서 역동적 이미지(dynamic image)를 보여준다. 이처럼 <푸른 하늘은>에 나타난 새의 이미지는 자유를 억압한 현실을 새의 비상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잘 그려내고 있다.

3. 역사의식을 나타낸 새 이미지

3.1 이육사의 박쥐 이미지

육사 이원록(1904-1944)은 서른 즈음에 시를 쓰기 시작하여 1930-1940년까지 약 10년 동안 40편의 시를 남겼다. 강인한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시작업을 해온 이육사의 시에 박쥐가 나온 것은 〈草家〉와 〈蝙蝠〉이다. 〈草家〉에서 박쥐는 “黃昏을 묻혀 오는” 공감각적 이미지이다. 이 작품에서는 역사의식이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蝙蝠〉에서는 멸망하는 겨레를 퇴화하는 족속인 박쥐에 비유하고 있다. 이 시에서 동굴은 망국의 조선이며, 쥐는 매국노로, 대붕처럼 기품있는 날짐승은 현실을 저버린 선각자로 비유되고 있다³⁾. 그러나 박쥐는 ‘어둠의王子’로 무너진 성채를 홀로 돌아다니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는 어둠 속에 쫓기면서도 암약하고 있는 독립투사이자 이 민족 전체의 표상으로 역사의식이 작품 속에 반영된 것이다.

3.2 박세영의 산제비 이미지

박세영(1902-1989)은 송영과 함께 시종일관 일제 강점기를 문학적으로 대응하려한 시인이다. 박세영은 민족의식과 자신의 치열한 인식을 결합하면서 조국의 구체적 실상을 담은 시를 발표하였다. 〈午後의 摩天嶺〉이 박세영의 신념을 노래한 시라면 〈산제비〉는 제비라는 새 이미지에 힘입어 파시즘 체제와 맞서려는 불굴의 의지와 시적 전망을 보여준다. 이 시에서 산제비는 ‘自由의化身’의 등가물이며, 가장 높은 경지에서 세상을 심원하게 내려다보는 존재이다. 하늘과 대지의 소유자인 산제비는 “가난한 農民을 爲하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상징적 존재로서 그 이미지는 역동적으로 드러난다.

4. 존재탐구로서의 새 이미지

4.1 새의 시인 박남수(1918-1994)는 전후 현실의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과 그 조건을 다루었다. 그의 중심 모티프인 새는 제2시집 〈갈매기 소묘〉(1958) 이후 제5시집 〈시슴의 관〉(198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적 변형을 보여주었다. 〈갈매기 소묘〉에서 갈매기는 공간 속에 존재하는 새이다. 시인 자신의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 시에서 새는 하늘과 물 사이의 팽창한 공간 속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떠 있다. 권영민은 이 시를 두고 “전쟁의 피해와 고된 피난민 생활의 이미지를 통해 구체화된 자아의 새로운 인식”이 짙고 있다고 보았다⁴⁾. 박남수의 대표시 〈새〉에서는 순수에 도달하지 못한 인간의 비애를 그린다. 이 작품에서 새의 이미지는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으며 특히 “피에 젖은 한 마리 傷한 새에 나타난 이미지는 인간 존재의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2 천상병(1930-1993) 시인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자아의 슬픈 투명성을 제거하고 사물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김우창이 지적했듯이 그의 후기시는 非시적인 것과 시적인 것, 일상적 관찰과 철학적 의미, 초연한 관조와 정치적 관심, 소박한 표면과 같은 내면을 결합한 독특한 시들을 써낸 것이다⁵⁾. 천상병 시에서 하늘 지향성은 새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새〉에서 새는 단순한 새가 아니다. 그것은 시인이 죽은 다음날 태어날 부활의 새인 것이다. 이처럼 천상병의 시에 나타난 새의 이미지는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존재 탐구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III. 결론

본고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았다. 낭만지향성, 사회비판의 매개체, 역사의식, 존재탐구가 그것이다. 우리 시대에는 아직도 새의 이미지가 풍부하다. 예컨대 김현승의 〈까마귀〉,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김구용의 〈제비〉, 최승호의 〈까마귀〉, 황지우의 〈새떼〉 등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새 이미지 연구는 차후에 남겨진 숙제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김학동, 향토적 자연과 ‘無常’의 관념-金炫壽論, 현대시인연구 I, 새문사, p.649, 1995.
- [2] 염무웅, 金洙暎論, 황동규 편, 金洙暎의 文學, 민음사, p.165, 1983.
- [3] 박성윤, 李陸史論,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9, 1982.
- [4]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p.118, 1993.
- [5] 김우창, 순수와 참여의 변증법-千祥炳의 詩, 지상의 척도, 민음사, p.302, 1981.